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514-15th N.E., Seattle, WA 98125 (206) 778-1972
 Paul H. Shin, Publisher
 Shi Chung Park, Editor

VOL. 2, NO. 4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JUNE 1975

◆ 워싱턴 - 밴쿠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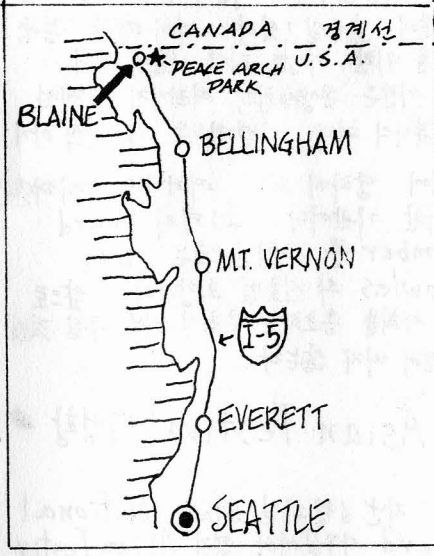
친선 야유회경 운동대회 12일로 박두 -

미국과 캐나다는 각기 다른 나라에 살고는 있지만 밴쿠버와 워싱턴 주는 국경을 접해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다. 견우적녀가 헤아다 칠월이면 만나듯처럼 밴쿠버에 사는 한인들과 워싱턴주에 사는 한인들이 헤아다 국경에서 만나 친선 경기 대회경 야유회를 가져왔다. 올해는 밴쿠버쪽이 주최인 만큼 지난달에 밴쿠버 한인일원들이 시애틀에와 이 행사에 대해 의논하고 날짜, 장소, 종목등을 정한바 있다. 이 워싱턴 - 밴쿠버 친선 야유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는 특히 날더노소가 다 함께 참석할수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한인회에서는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강보험까지 마련하고 있으며 한인회장은 학생들이 국경을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민과 교섭, 안만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피스 아치 파크 (Peace Arch Park)는 밴쿠버, 캐나다와 워싱턴주와의 국경지대인 이민과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인데 바다와 접해있어서 떠안 잘 맞추면 바닷물이 나간를라 조개도 잡을 수 있으므로 참가자들이 심실할 열려는 곳이다.

절실은 각자가 준비하도록 하는데 불고기나 같이등을 현지에서 구수일 분은 히아치등의 도구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여유가 있는 가정은 독선자들을 위해 음식을 넉넉히 마련해서 이 기쁜 행사를 다같이 즐길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행사가 열릴 장소까지는 시애틀부터는 2시간 정도 차로마부터는 3시간 정도가 걸리므로 이편을 참작해서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을것 같으며 지리에 익숙치 못한 분들은 우측의 약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다.



교포 제위께

워싱턴-밴쿠버 친목 야유회경 운동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날짜 : 7월 12일 (토) 11시
- 장소 : 캐나다 국경 피스 아치 공원 (Peace Arch Park)
- 지참서류 : 영주권 혹은 학생증 (I-20)

연습장이 나와 같이 연습하는 광경도 눈에 띄웠다. 한편 배구 선수로 참석할 분은 다음과 같다. 김인성, 김종현, 김재길, 박일용, 이석인, 윤태선, 윤태진, 조인호, 홍경선.



<연습광경 스냅>

◆ 워싱턴 - 밴쿠버 운동대회 ◆ - 경기종목과 종목의 감독자 -

- 경기종목
1. 여자 윷치볼 김창성 (한인회 봉사부장)
 2. 배구 { 여자 9명팀 - 조로한 (조직부장)
 남자 6명팀 - 황수철 (부회장)
 3. 달리기 { 한인회 회장로 - 오운복 (심외부장)
 할한 5명 릴레이
 4. 줄라리기 { 여자 1개팀 - 장진섭 (총무부장)
 남자 1개팀 - Mrs. Smith (재무부장)
 미성년자 1개팀 - 오계희 (교목부장)
 5. 사람찾기 (초. 중등 학교 미성년자) 박시정 (한인회보 편집)
- 친선 경기 대회에 출전할 선수 모집 -

◎ 워싱턴 - 밴쿠버 경기위해 - 선수들, 피로 무릎쓰고 맹연습 -

주상걸 체육부장은 고된 일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틈을 내어 Green Lake, U.W. 체육관 등에서 선수들과 더불어 오는 12일의 경기준비를 위해 마지막 핏치를 울리고 있다. 특히 다로마에서는 여자 배구 선수들이 시애틀까지 언길들 와서 연습을 했으며 한인회 부회장인 황수철씨, 이사장 전재상씨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12일 개최될 워싱턴-밴쿠버 운동 경기에 출전할 남. 녀 배구, 달리기, 여자 윷치볼의 선수를 불러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배구 선수가 모자라 체육부에서는 고심하고 있으니 이편기회에나마 주어지는 남. 녀 평등권을 포기하지 말고 많은 여성 선수들의 응모를 바라고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이나 또 취미있는 분을 알고 계신분은, 주상걸 체육부장에 연락하시거나 당일 접수시에 접수부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938-1180입니다.

◎ 한국 문화와 예술 하기 강좌
 워싱턴 대학 주최
 한인회
 워싱턴여학 한국학성회

자못 동양의 이해라면 중국과 일본 의 연구 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식되어 왔던 것이 한국의 이해없는 전제로서의 동양의 이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외국 의 사회와 학계에서 차차 이해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의 한 결핵은 이번 워싱턴 대학에서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주최하게 되는 "한국 문화와 예술의 이해와 소개" 라는 하기 강좌의 개최와 그에 부수하는 다양한 program의 진행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금번 워싱턴 대학 아시아 예술 연구원 (Center for Asian Arts) 이서는 부원장 맥किन 박사 (Dr. Richard McKinnon) 의 주선으로 한국의 예술과 문학과 생활을 소개 할 것으로서 1) 한국을 한국독자로서 이해할뿐 아니라 2) 일본과 중국과 연관하여 한국 문화 예술의 동양에 서의 역할을 이해한다는 목적으로 하기 강 좌를 열게 되었다고 한다.

강좌는 하기 강좌 첫 목요일인 6월 29일 부터 시작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2:30 부터 2시간 동안 8개의 강좌를 동 대학 Kane Hall에서 갖게 되는데 강의 내 용과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 주과목:
 한국어의 본질 -- Dr. Lukoff (워싱턴여교수)
 한국 문학 文學과 散文學 - 서우 박사 ()
 독립과목:
 한국의 저항문학 ... 최익환 박사
 한국의 미술 (회화, 조각) ... Dr. Webb
 한국의 고전문학 (연주포함) ... 정 성숙씨
 이와 같은 과목에 병행하여:

1. 한국 출판 문학을 (영어판) 전시회 ... 동대학 Undergraduate Library
 2. 한국 의상 소개 ... 7월 29일 오후 2:30부 러 동대학 Ethnic Center Theater
 3. 한국에 관한 문학 예술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 7월 29일 동대학 Ethnic Center
 4. 한국의 음식 시식
 5. 한국 방문 여행 ... 강좌 종료후가질 여행
- 이중에는 라수의 기록영화와 주제영 화 상연이 있다. 이같은 program 중이 는 한인회와 워싱턴 대학 한국 학성회가 후원도 하게 되는바 회원의 도움이 요청되고 있다.

◆ 신호범 한인회장 ◆
 - The Governor's "Commission On Asian American Affairs" board member로 리선됨 -

워싱턴주에는 다른 주에 못지않게 동 양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에 따라 동양 사회를 위한 기관도 자연 많게 된다. 위의 기관은 동양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점, 사회복지의 개혁, 차별대우등 소수민족 아 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을 위한 기관이다. 21명의 board member 중 한국인으로는 Mrs. Knowles 와 신호범 회장이다. 앞으로 한인 사회를 옹호하는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인 을 믿어 마지 않는다.

◆ Asian Festival 대성황 ◆

지난 6월 21일 State National Guard 사부실에서 열린 Asian Festival 은 2000명 이라는 큰 숫자가 참가 하 므로 대 성황을 이루었다. 이토록은 아 시 아 사람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3년전 에 발족되었으며 한국, 일본, 이슬람, 사오아 등의 아시안들이 주로 참석해 왔다. 인사, 모임의 취지, 귀빈소개등의 간 단한 의식을 서두로 끝 나라벌 (커뮤니티 별) 로 준비한 순서에 들어갔는데 한국 커뮤니티 이서는 정년의 무사님이 준비한 이궁창, 참 장, 장경에서의 가야금 연주, 송영남, 송영의 한국 고전무용, 부인회 이사장인 Kum Zaharias 여사의 장교춤을 것들이 참(鳴)을 제무하므로서 갈채를 받았고 일본 커뮤니티 이서는 특단, 사오아인은 불춤, 비둘빈 인은 민속무용을 보여 주므로서 다루어 각자 모 국의 전통과 문화를 자랑했다. 또한 부인회에서는 불고기, 잡채, 만두 김치등을 마련하고 하루 음식잡을 차렸는데

서느나라 음식보다도 인기가 있었다. 한편 1시부터는 아시아계 부인들이 주최해서 가족문제를 논하는 panel discussion 을 가지므로서 이축제를 더욱 뜻 있게 했으며 이대목적 행사는 9시, 60명이 참석한 비둘빈의 화려한 민속무용을 피날 레로 피막되었는데 이러한 행사에서도 다른 나라에 지지않게 한국을 소개할수 있었 던것은 타코마부인회의 열성과 프로그램 제 공을 도운 한인회의 힘이었고 이런 기회를 통 해, 서로 돕는 한인사회야말로 한인사회 지체 는 물론 모국에까지도 힘이 된다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되었다. 휴가중인 한인회 회장을 대신해서 멀리 타코마까지 오셔서 참석하 주신 황수철 부회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한인교회 합동 부흥회 개최
 - 김 일천 목사 모시고 -

워싱턴주 한인교역자회 (회장: 최 용일 목사) 에서 주최한 합동 대 부흥회 가 지난 6월 22일 부터 29일 까지 타코마 의 베다니 감리교회, 씨아들의 제일 한인 교 회, First Presbyterian 에서 열렸 었다. N. A.에서 초청한 김일천 목사는 "주님의 뜻" 등의 연재로 설교했는데 많은 교포 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 이세들 위한 모국어 교육
 - 타코마의 이송자 여사가 착수 -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이 모국어를 잊고 영어만 익히고 부모만을 나무랄수는 없다. 아이들을 나무랄수는 더욱없다. 나무랄 것이 있다면 아이들과 모국을 연관 시키는 특수한 교육적 관심이다. 모국을 떠날 리면 모국어가 첫째로 꼽힌다.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외국인 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 과 수도 여사대에 다년간 교편을 잡은바있는 이송자 여사는 이세들의 모국어 교육이 특별한 관심을 지고 이에따른 교재를 준비하기 위해 모 의 여러교육기관에 협조를 청 하고 있다. 이세들을 위한 교육이가 전혀 마련 되어 있지않은 실정이지만 계속 그 아이들을 모국어를 외면 시킨채 버려둘수는 없다고 우선 자발적 으로라도 시작해 볼 계획이 고 하는데, 여사의 뜻이 곧 결실을 맺어 한인 이세들도 모국어와 영어를 균형있게 구사할수 있게 될 계기가 마련 되었으리 라고 한다.

동양상점
 한국 고구려미와 맛을 자랑
 (주소) 10618 BRIDGEPORT VILLA TACOMA
 * 월 - 토 10:00AM - 8:00PM
 * 일요일 12:00AM - 6:00PM
 582 - 5565

◎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합니다. ◎

워싱턴주 한인회는 워싱턴주에 살 고 있는 한인교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유 용 하게 쓰일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포 사회에서 한인회비가 쓰여질 용도는 무한 합니다. 한인회는 여러가지 새롭고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정 안이 부딪혀 실행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 회비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강요 할 성질의 것은 아니나, 한인회를 돕는 의의 에서 1975년도 한인회비를 아직 못 내신 분은 아래사항을 참조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5불 이상, 만 18세 이상의 학 생 및 독신자, 3불인데 P.9 양식 참조, 주소, 성명, 금액을 정확히 적어 한인회 재무부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회비를 보내실때 는 수표나 어니오더를 사용하시고 현금 우송은 글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내신분에게는 영수증을 보내드리는것이 원칙 이겠으나 편의상 어말 발행되는 한인회보 이영단을 발표하므로써 영수증을 대신 하 도록 하였습니다. * 한인회비 내신분 (6월 21일 현재) 57. Hak Jo Kim 5\$ 58. Chim Sook Hughes 10\$



日光園キャバレー NIKKO GARDEN
 1421 - 6th AVENUE • SEATTLE, WA 98101
 Telephone: 624-3947

◆ 씨아들 한인 장로 교회 ◆
 - 강현식과 목사 위임식 -

지난 3월, 12412 Des Moines Way South, Seattle 이라 3층 교회 건물을 마련한 씨아들 한인 장로교회는 6월 29일 강현식과 아틀러 목사 위임식을 가졌 다. 워싱턴주의 각 교회인사, 각계 각층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강현식이 거행 되었다. 씨아의 결방살이 교회시설부터 파는 물은 어찌고 교회설립에 온 영혼을 바치다 시피한 김동현목사는 오늘날과 같이, 많은 신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를 받게된것은 그 시립의 고통과 외로움을 알고 견딜 힘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이라고 흐뭇해 했다.

□ 오역서 청중 애독사인 페티 김소
 - 열광적인 박수속에 막 내리다 -

푸른 모험을 막 내리듯이 지난 5월 31 일 오후 8시30분부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페티 김소가 있었다. 신호범 한인회장의, 청중이 드리는 인사말씀과 페티김의 약력 소개가 끝나자 막이오르고 푸른들의 상경처럼 녹색 드레스를 입은 페티김이 무대에 나 타

났다. 청신하고 우아한 스테이지 매너와 재 치있는 유모까지 섞여가며 불려온 <이별 > <빛과 그림자 > <서늘의 찬가 > 등은 오역 여 청중의 심금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청중 도 손뼉을 치며 함께 부른 <서늘의 찬가>는 바다 건너 멀리 두고온 서늘의 향수를 불러 일으켜 주었다.

“아이 보기 원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여정으로 성실껏 보아드리 겠으니 일하시는 어머니나 부부동반 나가실 일이있으 신 분은 서슴치아시고 전화 해 주십시오
 Mrs. Soon Ja Kim
 5205 - 230th St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TEL: 776-7115

◎ 용접사들의 친목회 ◎
 - 1975년도 상반기도 친목을 목표로 -

친목회는 지난 6월 7일 우드랜드 파크에서 협회의 이름 그대로 친목을 도모 하자는 뜻의 야유회를 개최를 가졌다. 이제, 회장의 임기를 6개월 앞둔 이 친목회 회장 심상현씨는 남은 임기동안도 용접사들 간의 친목을 최우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씨는 또한, 어느 사회 에서나 사회인 서로간의 친목이 그 성공의 가부를 결정하듯이 친목회 회원간의 끈 끈 단 친목이야말로 UNION을 향한 한국 용접사들의 바르고 큰 목소리가 될것은 물론 그들이 고공되어 있는 회사측을 향해서도 무 시 못할 큰 힘이 될것이라고 씨는 강조했다.

다하게 아동 교육 program 변경에 관한 사과의 말씀

한인회에서는 간단한 하계 아동교육 을 위하여 준비한 바 있었고 1간 여론조사 도 끝나 있었지만만 교육비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 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어 라들러로 바꾸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1간 여론 조사가 응하여 주신분들 또한 여 러모로 격려하여 주신분에게 무어라 죄송 할을 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해에 가능 하도록 해 볼것입니다.

안병용 부동산.보험
 Prudential REALTOR
 838-2010 타코마 927-2277
 PHILIP BYUNG-YONG AHN 안병용
 부동산 집·아파트·땅-매매-관리-전세
 보험 차·건강·교육·저축성 생명·IRA

1 9 7 5 S E A T T L E - V A N C O U V E R P I C N I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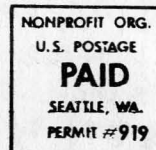
This year's Seattle-Vancouver picnic is scheduled for July 12, 1975, 11:00 A.M. at the Peace Arch Park located on the U.S.-Canada border. This annual event is sponsored by both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nd Vancouver Korean Association for the purpose of renewing friendship among Koreans and friends of Koreans in the two countries.

Various sports activities and programs will be provided for all ages. For children, there will be a treasure hunt, races and various children's games; and for the adults, such games as volleyball, races, rope-pulling contest, women's volleyball and various games suitable for adults. The highlight of the gathering, naturally, is the lunch. May we request each family bring enough food for your family and some extra so that we can share with others such as students and single people who can't bring lunch. A hibachi grill will be provided for cooking your meat.

In as much as it will take approximately two hours from Seattle and three hours from the Tacoma area may we suggest you leave sufficiently early so that you can arrive by 11:00 A.M. We hope all will come and share a spirit of reunion and friendship.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514 - 15th Ave. N.E.
Seattle, Wash. 98125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